

22. 욥기 퀴즈

1장

1.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
2. 욥의 자식은 어떻게 되나?
3. 욥의 재산은 어떤가?
4. 주님은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넘기지만 무엇이 손대지 마라고 하셨나?
5.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은 ()받으소서.”

2장

6. 욥의 자식과 재산 등 모든 소유를 쳐도 죄를 짓지 않자 그의 뼈와 살을 치는 시험까지 요구하는 사탄에게 주님께서서는 무엇만은 남겨두라고 하셨나?
7. 사탄은 욥의 발바닥에서 머리꼭대기까지 무엇으로 쳤나?
8.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을 받는다면, ()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9. 욥의 불행을 듣고 위안하고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세 친구가 그의 큰 고통을 보고 며칠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나?

3장

10. 욥은 무엇을 저주하였나?
11. 욥의 탄식에서 태중에서 어떠하기를 바랐나?
12. 욥 자신은 편치 않고 쉬지도 못하며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다만 무엇하기만 하다고 하나?

4장

13. 욥의 친구 엘리파즈는 어디 사람인가?
14. 엘리파즈는 과거에 욥이 비틀거리는 이를 무엇으로 일으켜 세웠다고 했나?
15. “내가 본 바로는 밭을 갈아 ()를 심은 자와 ()을 뿌린 자는 그것을 거두기 마련이라네”

5장

16. 엘리파즈는 미련한 자는 역정 내다가 죽고 우둔한 자는 어찌다가 숨진다고 했나?
17. 엘리파즈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는 이를 행복하다고 하며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물리치지 마라고 했나?

6장

18. 욥은 자신의 원통함과 불행을 저울에 달아보면 무엇보다 무거운 것이라고 했나?
19. 욥은 무엇이 위로가 되어 모진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뛰겠다고 했나?
20. “나를 가르쳐 보게나, ().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깨우쳐 보게나”

7장

21. “인생은 땅 위에서 ()이요 그 나날은 ()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22. “나의 나날은 ()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23. 읊은 잠잘 때라도 위로받고 탄식하려 하지만 무슨 공포와 고통을 받았는가?
24. “제 영혼은 이런 ()보다는 숨이 막혀버리기를, 차라리 ()을 택하겠습니다.”

8장

25. 빌닷은 어디 사람인가?
26. 빌닷은 읊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같다고 했나?
27. 빌닷은 읊이 하느님을 찾고 자비를 구하고 읊이 결백하고 옳다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나?
28. “()에 물어보고 그 ()이 터득한 것에 유의하게나. 우리는 갓 태어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인생은 땅 위에서 ()일 뿐.”

9장

29. “하느님과 소송을 벌인다 한들 ()라도 그분께 답변하지 못할 것이네.”
30. “내가 의롭다 하여도 답변할 말이 없어 내 고소인에게 ()를 구해야 할 것이네.”
31. “그분은 나 같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나 그분께 ()할 수 없고 우리는 함께 ()으로 갈 수 없다네.”

10장

32. “나 하느님께 말씀드리리라. 저를 단죄하지 마십시오. () 알려두십시오.”
33. “저를 (). 이제 살날이 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이나마 생기를 되찾게 저를 놓아주십시오.”

11장

34. 초바르는 어디 사람인가?
35. “깨달음에는 ()이 있는 법이라네. 하느님께서 자네 죄를 조금이나마 잊기로 하셨음을 알기나 하계.”
36. “자네가 하느님의 ()를 찾아내고 전능하신 분의 ()까지도 찾아냈단 말인가?”
37. “자네 손에 ()이 있다면 멀리 치워버리고 자네 천막에 ()가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계나”

12장

38. “나도 자네들처럼 이성이 있고 자네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네. 누가 그런 것을 ()?”
39. “백발에 ()가 있고 장수에 ()가 깃든다 해도 오직 그분께만 지혜와 능력이 있고 경륜과 슬기도 그분만의 것이라네.”

13장

40. “그러나 자네들은 거짓을 꾸며내는 자들, 모두 ()일세. 아, 자네들이 제발 입을 다문다면!”

41. “그분께서 나를 죽이려 하신다면 나는 가망이 없네. 다만 그분 앞에서 내 길을 ()하고 싶을 뿐.”
42. “당신의 ()을 제게서 멀리 치우시고 당신에 대한 ()가 저를 덮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43.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이? 저의 악행과 죄를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14장

44. “바로 이런 존재에게 당신께서는 눈을 부릅뜨시고 손수 저를 ()으로 끌고 가십니다.”
45. “제 고역의 나날에 저는 고대합니다. 제 ()가 오기까지.”
46. “물이 돌을 부수고 큰비가 땅의 흠을 씻어 가듯 당신께서는 사람의 ()을 꺾으십니다.”

15장

47. 엘리파즈는 욥을 질타하며 자기가 아니라 욥의 무엇이 욥을 단죄한다고 했나?
48. 악인은 재앙을 잉태하여 불행만 낳으니 그들의 모태는 무엇만 마련할 뿐이라고 했나?

16장

49. “그런 것들은 내가 이미 많이 들어 왔네. 자네들은 모두 ()이구려.”
50. “내가 ()을 해도 이 ()이 줄지 않는구려. 그렇다고 말을 멈춘들 내게서 무엇이 덜어 지겠는가?”
51. “하느님께서서는 나를...당신의 ()으로 삼으셨네. 그분의 ()들은 나를 에워싸고 그분께서는 무자비하게 내 간장을 꿰뚫으시며 내 쓸개를 땅에다 내동댕이치신다네.”
52. “지금도 나의 증인은 ()에 계시네. 나의 ()은 저 높은 곳에 계시네.”

17장

53. “제 ()은 산산이 부서지고 제 ()은 다해 가니 저에게 남은 것은 두덤뿐.”
54. “나는 백성들의 ()로 내세워져 사람들이 얼굴에 ()가 되었네.”
55. “도대체 어디에 내 ()이 있으리오? 나의 희망? 누가 그것을 볼 수 있으리오?”

18장

56. “어찌하여 우리가 ()처럼 여겨지며 자네 눈에 ()하게 보인단 말인가?”
57. “정녕 ()들이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네.”

19장

58. 욥은 친구들이 이미 몇 번이나 자기를 모욕하고 괴롭히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하는가?
59. “내가 지날 수 없게 그분께서 내 길에 ()을 쌓으시고 내 앞길에 ()을 깔아 놓으셨네.”
60. 욥은 누군가 자기의 이야기를 어디에다 기록해 주기를 바라나?
61. 욥은 살갓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기어이 누구를 뵈고자 하는가?

20장

62. “()들의 환성은 얼마 가지 못하고 ()의 기쁨은 한 순간뿐임을.”
63. “악이 입에 달콤하여 제 () 밑에 그것을 감추고 아까워서 내놓지 않은 채 입속에 붙들고 있다 해도 그의 음식은 () 속에서 썩어 배 속에서 살무사의 독으로 변한다네.”

21장

64. “참아 주게나, 내가 ()을 하게. 내 말이 끝난 뒤에 () 좋네.”
65. “어째서 ()들이 오래 살며 늙어서조차 힘이 더하는가?”

22장

66. “자네가 의롭다 하여 ()께 무슨 낙이 되며 자네가 흠 없는 길을 걷는다 하여 그분께 무슨 득이 되겠나?”
67. “세상은 ()이 센 자에게 속하고 ()을 누리는 자가 차지하지.”
68. “자, 이제 그분과 ()하여 평화를 되찾게. 그러면 자네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일세.”

23장

69. “아, 그분을 () 있는지 알기만 하면 그분의 거쳐까지 찾아가련마는.”
70. “내 ()은 그분의 발자취를 놓치지 않았고 나는 그분의 ()을 지켜 빛나가지 않았네.”

24장

71.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치명상을 입은 이들이 도움을 빌건만 ()께서는 이 부당함에 관심도 두지 않으시는구려.”
72.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빼앗아 가듯 저승도 ()들을 채 가 버리네.”

25장

73. “그분께서는 ()과 ()가 있네. 당신의 높은 곳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
74. “하느님 앞에 사람이 어찌 () 하리오?”

26장

75. “그분 앞에서는 저승도 () 멸망의 나라도 가릴 것이 없네.”
76. “그분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작은 ()만 듣고 있나? 그러니 그분 권능의 ()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나?”

27장

77. “나는 결단코 자네들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네. 죽기까지 ()을 포기하지 않겠네.”
78. “()가 홍수처럼 그를 덮치고 밤에는 폭풍이 그를 휩쓸러 가 버리네.”

28장

79. 금과 유리도 그와 같을 수 없고 진금 그릇들과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와 수정도 말할 나위 없으니 무엇의 값어치는 진주보다 더한가?
80. “보아라, ()을 경외함이 곧 지혜며 ()을 피함이 슬기다.”

29장

81. “아, 지난 세월 같았으면! 하느님께서 나를 보살피시던 날들.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 위를 비추고 그분 빛으로 내가 () 속을 걷던 시절.”
82. “나를 보고 ()들은 물러서고 ()들은 몸을 일으켜 세웠지.”
83. “나는 ()로 옷 입고 정의는 나로 옷 입었으며 나의 ()은 겉옷이요 터번과도 같았지.”

30장

84. “그러나 이제는 나를 비웃네, 나보다 ()들이.”
85. “그들은 나를 역겨워하며 내게서 멀어지고 내 얼굴에다 서슴지 않고 ()을 뺏는구려.”
86. “제가 부르짖어도 당신께서는 ()하지 않으시고 줄곧 서 있어도 당신께서는 저에게 ()을 주지 않으십니다.”

31장

87. “내가 만일 거짓 속에 걸어왔고 남을 속이려고 내 발이 서둘렀다면 나를 바른 ()에 달아 보시라지.”
88. “아, 제발 누가 내 ()을 들어 주었으면! 여기 내 서명이 있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대답하실 차례!”

32장

89. 엘리후가 욥에게 화낸 이유는?
90. 엘리후가 세 친구에게 화를 낸 이유는?
91. “그렇지만 사람 안에 있는 ()이,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더군요.”
92. “나는 ()할 줄 모른다네. 그랬다가는 나를 만드신 분께서 나를 당장 앗아 가시리라.”

33장

93.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보다 ()하십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분과 싸우십니까?”
94.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자리 위에서 잠들었을 때 꿈과 밤의 환상 속에서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환영으로 그들을 질겁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제 ()에서 떼어 놓고 인간에게서 ()을 잘라 내 버리시려는 것입니다.”
95. “그의 목숨을 ()에서 되돌리시고 그를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려는 것입니다.”

34장

96. “입이 음식 맛을 보듯 귀는 ()을 식별한답니다.”
97. “전능하신 분께서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그 ()대로 되 값으시고 인간을 그 ()에 따라 대하십니다.”
98. “그분께서 ()을 지키신다고 누가 그분을 단죄하며 그분께서 얼굴을 감추시면 누가 그분을 보겠습니까?”

35장

99. “당신이 죄지었다 한들 그분께 무슨 ()를 끼치며 당신의 죄악이 많다 한들 그분께 무엇을 어찌하겠습니까?”
100. “당신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신의 ()는 이미 그분 앞에 있으니 기다리십시오.”
101. “웁은 쓸데없이 입을 열어 ()없이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36장

102. “사실 하느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103. “진노가 넘친다 하여 ()으로 이끌리지도, 속전이 넘친다 하여 ()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104.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이 ()하시고 그분의 햇수는 헤아릴 수 없답니다.”

37장

105. “하느님은 당신의 소리로 신비로이 천둥 치게 하시는 분, 우리가 ()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106. “잠깐 멈추고 하느님의 놀라운 ()을 살펴보십시오...완전한 지식을 갖추신 분의 신비로운 업적을 당신은 아십니까?”

38장

107.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웁에게 말씀하셨나?
108. “내가 ()을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잘 알거든 말해 보아라.”

39장

109. “너는 바위 산양이 해산하는 ()을 알며 사슴이 산고를 치르는 것을 살펴보았느냐?”
110. 날개를 높이 칠 때면 말과 기수를 우습게 여기는 짐승은?

40장

111. “불평꾼이 전능하신 분과 논쟁하려는가? 하느님을 비난하는 자는 ()하여라.”
112. “저는 보잘것없는 몸, 당신께 무어라 대답하겠습니까? 손을 제 ()에 갖다 댈 뿐입니다.”
113. “사내답게 허리를 동여매어라.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네가 나의 공의마저 깨뜨리려느냐? 너 자신을 ()하려고 나를 단죄하려느냐?”

41장

114. “() 아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값으라고 외치며 나에게 맞서는 자가 누구냐?”
115. “높은 자들을 모두 내려다보니 그것은 모든 ()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임금이다”

42장

116.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서는 어떠한 계획도 (

)하지 않음을!”

117.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지냈었습니다.”
118. 주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가 욥처럼 주님께 올바른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며 그들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바치라고 하였나?
119. 주님께서는 욥이 전에 소유하였던 것을 얼마로 더해 주셨나?

답: 1장: 1.흠 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 2.7남 3녀 3.양 7천 마리, 낙타 3천 마리, 거릿소 5백 마리, 암나귀 5백 마리, 매우 많은 종 4.욥 5.알몸, 주님, 이름, 찬미

2장: 6.목숨 7.고약한 부스럼 8.좋은 것, 나쁜 것 9.7일

3장: 10.제 생일 11.죽었기를 12.혼란

4장: 13.테만 14.말 15.불의, 재앙

5장: 16.흥분 17.꾸짖으시는 이

6장: 18.바다의 모래 19.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서 20.내가 입을 다물겠네

7장: 21.고역, 날뎌팔이 22.베틀의 북 23.꿈과 환시 24.고통, 죽음

8장: 25.수아 26.사나운 바람 27.욥의 소유를 정당하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28.지난 세대, 조상들, 그림자

9장: 29.천에 하나 30.자비 31.답변, 법정

10장: 32.왜 저와 다투시는지 33.내버려 두십시오

11장: 34.나아마 35.양면 36.신비, 한계 37.죄악, 불의

12장: 38.모르겠나 39.지혜, 슬기

13장: 40.돌팔이 의사들 41.변호 42.손, 공포 43.죄와 허물

14장: 44.법정 45.해방의 때 46.희망

15장: 47.입 48.속임수

16장: 49.쓸모없는 위로자들 50.말, 아픔 51.과녁, 화살 52.하늘, 보증인

17장: 53.영, 수명 54.이야깃거리, 침 뱉는 신세 55.희망

18장: 56.짐승, 멍청 57.악인

19장: 58.10번 59.답, 어둠 60.비석 61.하느님

20장: 62.악인, 불경한 자 63.혀, 내장

21장: 64.말, 비웃어도 65.악인

22장: 66.전능하신 분 67.주먹, 특권 68.화해

23장: 69.어디에서 찾을 수 70.발, 길

24장: 71.하느님 72.죄지은 자

25장: 73.주권, 공포 74.의롭다

26장: 75.벌거숭이 76.속삭임, 천둥소리

27장: 77.나의 흠 없음 78.공포

28장: 79.지혜 80.주님, 악

29장: 81.어둠 82.젊은이, 늙은이 83.정의, 공정

30장: 84.나이 어린 자 85.침 86.대답, 눈길

31장: 87.저울판 88.말

32장: 89.웁이 스스로 하느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므로 90.그들이 대답할 말도 찾지 못하면서
웁을 단죄하였기 때문 91.영 92.아침

33장: 93.위대 94.행실, 교만 95.구령

34장: 96.말 97.행실, 길 98.침묵

35장: 99.해 100.송사 101.분별

36장: 102.분별력 103.반향, 현혹 104.위대

37장: 105.깨달을 수 없는 106.업적

38장: 107.폭풍 속 108.땅

39장: 109.시간 110.타조

40장: 111.응답 112.입 113.정당화

41장: 114.하늘 115.오만

42장: 116.불가능 117.신비 118.번제물 119.갑절